



aT, 비엔나서 ‘韓 프리미엄 식재료 요리시연 행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지난 9~10일 비엔나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한국 프리미엄 식재료 요리시연 행사’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사에는 현지 외식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간의 모든 조리 시연은 한식당 모던코리아의 김도훈 조리장이 직접 맡아 진행했다.

/aT



LG생활건강, 강릉 가뭄에 ‘울림워터’ 30만병 지원

LG생활건강이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강릉에 고급 먹는 샘물 ‘ViO워터TM 울림워터 450mL’ 30만병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1차 지원분으로 13만 1520병을 배수했고 오는 22일에는 2차 지원분 16만 8480병을 추가 기부한다.

/LG생활건강



KB국민은행, ‘K-비즈니스 리더스 포럼’ 열어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2025 K-비즈니스(Business) 리더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Co-Evolution : AI와 함께 진화하는 기업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는 우수 중소·중견 기업 CEO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사진)을 포함한 경영진 등 340여 명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美 관세대우 ‘상생협력 수출금융 지원’

하나은행이 HL그룹,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미국 관세 부과로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협력업체 대상 ‘상생 협력 수출금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박정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은행

인사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진영

부음

▲장곤식씨 별세, 임채호(경기도의회 사무처장)씨 장모상=14일 안양장례식장 VIP실(지하 1층), 발인 16일, 장지 함백산 추모 공원, 031-456-5555.

“금융 가교 넘어 실질적 혜택 주는 협력의 초석되길”

한-필 금융협력 포럼

韓 기업감사·현지 관계자 등 한자리
필리핀, 연평균 4.67% 경제 성장률

“韓, 필리핀의 소중한 경제 파트너
금융부문 협력 더 확대할 준비 돼”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에는 한국의 대표 기업 감사와 리스크관리 담당, 현지 관계자 등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필리핀 양국 협력 방안을 찾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탐색하기 위해서다.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필리핀은 물 위를 뛰어오르는 돌고래와 같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K-테크’·‘K-컬처’와 필리핀의 강점이 결합한다면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우정은 6.25 한국전쟁부터 시작됐다”면서 “금융, 건설, 제조,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결실을 보고, 이번 포럼 자리가 양국 간의 화해와 동반성장의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필리핀 경제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4.67%의 견조한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그 결과 1995년 837억 달러였던 경제 규모는 2024년 4616억 달러로 5.5배 이상 커졌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역시 1224달러에서 4078달러로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메트로미디어 주최 ‘2025 한-필 금융협력 포럼’이 11~13일 필리핀 마닐라 SEDA호텔에서 한국과 필리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이정희 메트로미디어 전무,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 이순우 메트로미디어 언론운리위원장, 박만환 제일엔지니어링 고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올해도 1분기 5.4%, 2분기 5.5%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남아시아 주요국인 아세안5(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한국의 현지 투자와 기업 진출도 활발하다. 2025년 상반기 필리핀 내 투자 승인액이 전년 동기 대비 59.1% 증가했으며, 이 중 한국이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성장의 핵심은 탄탄한 내수 기반이다. 1억1000만명에 달하는 인구와 중산층의 부상으로 강력한 소비 시장이 형성됐고, 해외 근로자가 보내온 송금액이 지속해서 늘면서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다.

유니나 망요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은 “한국은 필리핀의 가장 소중한 경제 파트너 중 하나다. 인프

라 금융, 무역 촉진, 디지털 금융 솔루션, 지속가능 금융 이니셔티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면서 “금융 부문 간 교류 역할을 통해 이번 포럼을 넘어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흐름이 한층 강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은 한국 금융 부문과의 협력을 더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의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는 협력의 초석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유프로시니오 M. 베르나베 주니어(Eufrocino M. Bernabe, Jr) 필리핀 재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마련한 중기 재정 프로그램은 견실한 재정 및 경제 기반을 다져 더 빠르고 멀리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면서 “성장 촉진형 재정 통합 전략으로 필리핀은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방식

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고 있다. 동시에 장기적인 투자를 재원으로 확보하여 경제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소득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리핀은 2028년까지 800만명의 빈곤 탈출을 목표로 포용적 성장과 안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경제 자유화, 자본시장 강화, 수자원 개발 현대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모든 파트너와 함께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멀리 뻗어나가며, 더 높이 비상하자”고 했다.

필리핀의 성장을 이끈 각종 인프라 투자와 외국인 투자 뒤에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정책이 있었다. 2021년 CREATE 법을 제정해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했지만, 복잡한 인센티브 체계와 행정 절차 지연 등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2024년 CREATE MORE 법을 새로 제정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투자 절차를 간소화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 지방세 최대 2% 고정에 이어 외국인 전문 인력을 위한 특수비자 제도까지 신설했다. 이처럼 법인세 인하에 더해 다양한 행정 및 세제 인센티브가 결합하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보다 확실하게 전달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삼성전자서비스, 자립준비청년 지원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임직원 파견
스마트폰·태블릿 점검 재능나눔
생필품 후원, 기술자 양성 지원도

삼성전자서비스 임직원들이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 편의와 진로 탐색에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3일 창원시와 굿네이버스 경남도자립지원단담기관 주관으로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드림캐쳐 페스티벌’에 휴대전화 점검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임직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무상 점검하며 재능 나눔을 실천했고, 희망디딤돌 경남센터에는 이불 등 생필품도 후원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해당 행사에는 경남 도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아동 100여 명이 참석했다.

회사는 청년들이 기술 역량을 쌓아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삼성희망디딤돌 ‘공조냉동기술자양성과정’도 지원하고 있다.

삼성희망디딤돌은 주거, 직무 교육, 취업을 지원하는 삼성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지난 9월 대전 종합기술교육장에서 교육생 대상 현장 견학과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 교육생들은 ▲가스 용접 실습 및 노하우 습득 ▲



삼성전자서비스 중환 기술교육장에서 현장 실습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산업 안전 체험 교육 ▲스마트가전 IoT 연동 실습 ▲냉난방시설 및 공조기기 설치·점검·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 엔지니어 직무 특강 등에 참여해 자격증 취득과 향후 취업 준비에 도움을 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23년 구미센터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전국 희망디딤돌센터와 연계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희망디딤돌센터에서는 가전제품 점검 및 세척, 자립준비청년 스마트폰 수리,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 24회, 올해는 21회에 걸쳐 제품 점검과 물품 후원을 진행해온 바 있다.

/정희준 기자 nauta@

애경산업, 추석 맞아 현금 조기지급 결정

협력사 67곳에 82억 납품대금 지급

애경산업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에 대해 ‘현금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자사와 거래하는 67개 협력사에 82억원 수준의 납품대금을 당초보다 최대 5일 앞당겨 지급한다.

애경산업은 지난 2022년 설 명절부터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석까지 누적으로 총 730억원을 조기 지급하게 된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의 부담을 완화하며 상생과 동반 성장은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에쓰오일, ‘韓 공공PR대상’ 우수상 수상

업사이클링 ‘굿러브스 캠페인’

에쓰오일(S-OIL)은 한국광고홍보학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 공공PR대상’에서 민간기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셀프주유소에서 사용 후 버려지던 일회용 비닐장갑을 다회용 주유장갑으로 업사이클링한 ‘굿러브스(GoodLOVE S) 캠페인’이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시작된 굿러브스 캠페인은 서울 마포구 에쓰오일 연리동주유소에서 수거한 일회용 비닐장갑을 내구성이 높은 원단으로 재가공해 셀



에쓰오일 공공PR대상 우수상 GoodLOVES 캠페인 영상 장면. /에쓰오일

프주유에 적합한 다회용 장갑으로 제작하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보관과 우치를 함께 제공해 자원 선순환의 의미를 더했다. 캠페인 영상과 사전 이벤트는 에쓰오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됐으며 ‘비닐장갑남비를 줄일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원관희 기자 wkh@